SILAS FONG

실라스 퐁 | 주요 작업 2008-2026

사진, 설치, 영상,
참여형 작업, 출판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2020

작업 소개와 목차

전체 프로젝트 기록으로 연결되는 공개 포트폴리오.

사람들이 배우고 기다리며 일하고 교환하는 상황을 다룬다. 설치와 영상, 책, 참여형 프로젝트는 학교와 상점, 보고서, 주방 같은 익숙한 형식을 빌려 시간과 지식, 인정에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지를 묻는다.

최근 음식 기반 작업은 제도에 대한 풍자에서 제빵사와 장인, 이웃과의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다. 기술을 배우고 만든 것을 나누는 과정은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 된다. 가족 돌봄 역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제 조건의 일부다.

빵소리 03

키친 노트: 강릉에서의 세 번의 시도 09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빵학과 12

SAD 키친: Oi! 가이드 15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18

In-Attention 20

Piccolominstr. 316 22

Flat D 24

Stolen Times for Sale 26

이 포트폴리오는 아홉 프로젝트를 선별해 소개한다. 더 넓은 작업의 연대기와 영상 기록, 비평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빵소리

2023-진행 중 | 배움, 제빵, 교환, 퍼포먼스



제빵 퍼포먼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광주, 2023.

가족을 위해 빵을 굽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제빵사와 음식 장인을 찾아가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며, 그 만남을 퍼포먼스와 교환, 식사로 이어간다. 빵에는 이 과정에 들인 시간과 노동이 남는다.

아내와 아들은 일부 배움의 방문과 공동 식사에 함께했다. 이들의 참여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일부다. 여행과 레지던시, 작품 제작 중에도 가족의 일상과 돌봄은 계속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광주: 배움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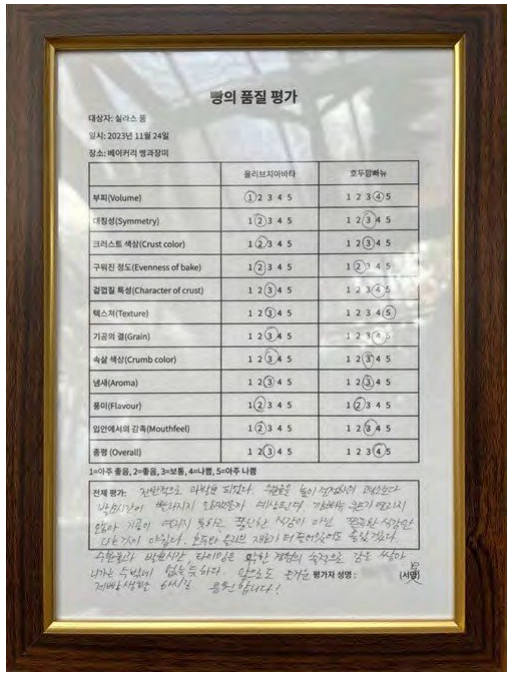
2023 | 빵과장미 /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광주에서 제빵을 배운 빵과장미.



작가가 직접 제작하고 제빵사가 서명한 수료증.



작가가 직접 제작하고 제빵사가 작성·서명한 빵 평가서.

빵과장미에서 치아바타와 캉파뉴 만드는 법을 배웠다. 수료증과 빵 평가서는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뒤, 가르쳐 준 제빵사에게 서명을 부탁했다. 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기술 교환을 기록하는 문서다. 이후 연습과 레지던시의 제빵 퍼포먼스로 배움을 이어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프랑크푸르트: 식탁을 사이에 둔 배움

2024 | 슈테델슐레, 프랑크푸르트



호신 부흘루가 작가 제작 수료증에 서명하는 모습, 프랑크푸르트, 2024.



배움의 기록: 작가가 디자인·제작하고 가르쳐 준 셰프가 서명한 수료증.

슈테델슐레 구내식당의 총주방장 호신 부흘루에게 사워도 호밀빵 만드는 법을 배웠다.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수료증에 그가 서명했다. 특정한 배움과 관계를 기록하는 문서이며, 미술대학이 발급한 자격증이 아니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점심으로 이어진 초대

프랑크푸르트 | 2024년 7월



호신 부흘루가 준비한 점심을 아내, 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 프랑크푸르트, 2024년 7월.

배움은 호신 부흘루가 준비한 점심으로 이어졌고, 아내와 아들도 함께했다. 이들의 존재는 환대를 주고받는 과정의 일부다.

나에게 가족 돌봄과 예술 활동은 분리된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움의 방문에는 함께하는 시간과 가족이 같이 이동하기 위한 실제 준비가 따른다. 빵이 놓인 식탁에서 나는 셰프에게 배우는 예술가이면서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오키나와: 배움을 이어가기

2024 | 르 프레타포르테, 나하



나하 르 프레타포르테의 제빵사와 함께.



작가 제작 수료증. 가르쳐 준 제빵사의 서명.



빵집에서 배운 뒤 혼자 해 본 첫 바게트 시도.

나하의 동네 빵집에서 바게트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 수료증 역시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으며, 가르쳐 준 제빵사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후 혼자 해 본 첫 제빵 시도는 문서만큼 중요하다. 반복과 조정, 그리고 만들어 나누는 음식을 통해 배움은 계속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챕터: 밀 배우기

2026 | 사부작 레지던시, 양평



지역 어르신들과 빵과 잼을 나누는 자리, 양평, 2026. 아들도 함께했다.



레지던시 중 팀화요와 함께, 양평, 2026.

양평에서는 한국에서 재배한 밀을 통해 재료 뒤에 있는 사람과 노동으로 관심을 넓혔다. Hannah Uhm 셰프의 소개로 팀화요의 농사 활동에 참여하고, 직접 만든 빵과 잼을 지역 어르신들과 나누었다. 아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 장에서는 반죽 실험이 농사, 경청, 함께 먹는 시간과 이어진다. 가족은 고립된 예술가의 배경이 아니라 실제 만남에 참여한 사람으로 기록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키친 노트: 강릉에서의 세 번의 시도

강릉에서의 세 번의 시도 | 2025 | 대추무파인아트



음식 나눔 퍼포먼스, 키친 노트, 강릉, 2025.

강릉의 제빵사 두 명과 소시지 장인 한 명을 만난 세 번의 경험이 출발점이다. 직접 배운 기술을 연습하고, 그 관계를 도구와 자작 패키지, 수료증, 드로잉, 음식 나눔으로 전시장에 옮겼다.

이 만남에서 배운 빵과 뉘른베르크식 소시지에 더해, 한국에 살면서 스스로 익힌 홍콩식 에그타르트도 선보였다. 공식 자격 체계 밖에서 지식과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묻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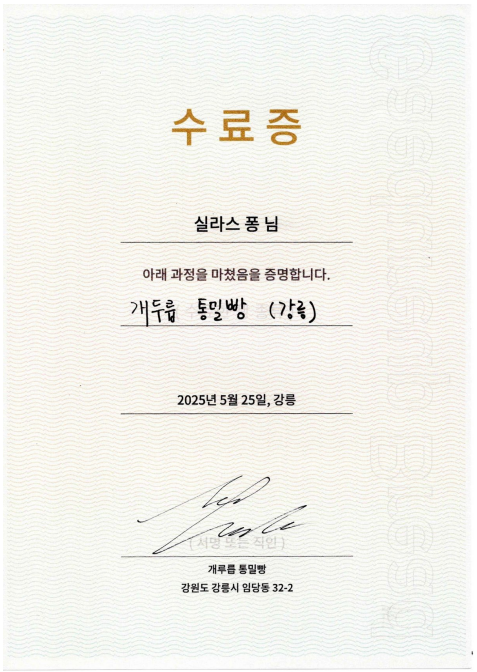
키친 노트: 강릉에서의 세 번의 시도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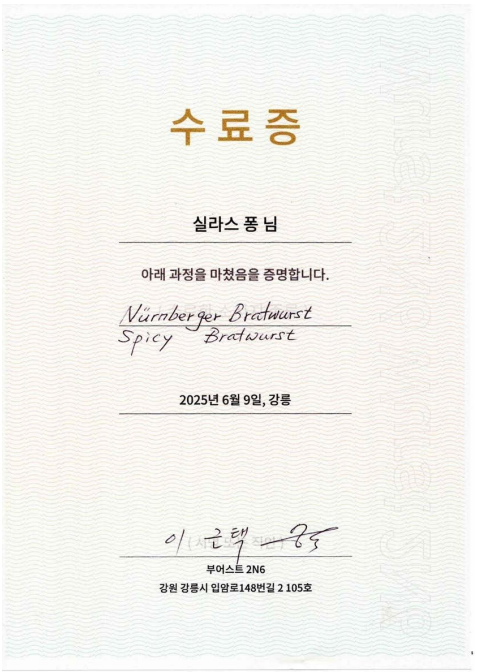
키친 노트 | 2025



강릉의 지역 빵집을 찾은 배움의 방문. 아들도 함께했다.



개두릅 통밀빵 배움을 기록한 작가 제작 수료증. 제빵사의 서명.



뉘른베르크식 소시지 배움을 기록한 작가 제작 수료증. 소시지 장인의 서명.

수료증은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으며, 기술을 가르쳐 준 장인들에게 서명을 부탁했다. 이름과 서명은 실제 만남에 배움의 근거를 둔다. 공인 교육기관의 자격증이 아니라, 교환을 기록하는 자작 문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키친 노트: 강릉에서의 세 번의 시도

도구, 패키지, 흔적

키친 노트 | 설치, 프린트, 드로잉 | 2025



키친 노트 전시 전경, 대추무파인아트, 2025.



SAD 키친 셰프 키트, 2025.



배움과 연습을 통해 만든 빵 한 조각을 잉크 드로잉으로 옮긴 작업.

전시장에는 실제 조리 도구와 배움을 약속하는 상품의 형식이 함께 놓인다. 셰프 키트가 제품의 언어를 빌린다면, 빵 드로잉은 구체적인 연습의 흔적을 남긴다. 드로잉 속 단면은 강릉에서 만난 장인들에게 배운 뒤 연습해 만든 빵 한 조각이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빵학과

2024 | 갤러리 조선, 서울



빵학과 전시 전경, 갤러리 조선, 2024.

가상의 SAD 학교는 제빵을 성취의 교육과정으로 바꾼다. 참여자는 과제를 수행하고 전문 용어를 접하며 증명서를 받지만, 무엇을 배웠는지는 불확실하다.

자격과 측정 가능한 결과가 호기심을 밀어내는 교육 체계를 풍자한다. 누가 성공을 규정하는지, 시험은 무엇을 측정하는지, 예술의 배움을 외부 기준 안에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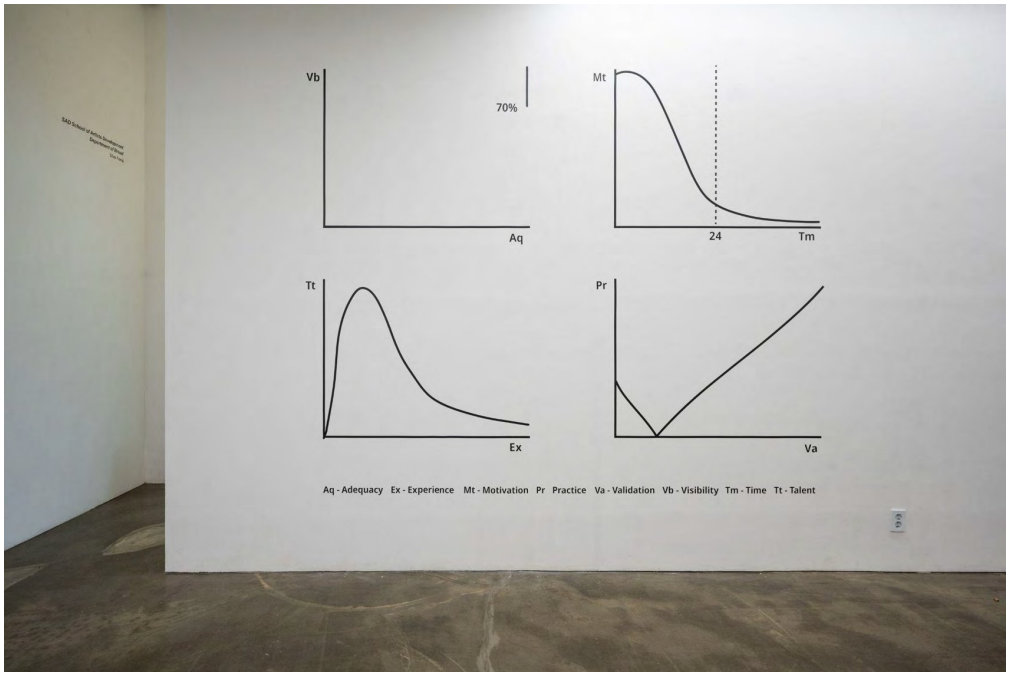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빵학과

인정을 위한 연습

빵학과 | 참여형 설치 | 2024



전시장에 설치된 워크숍 장치와 안내 영상.



교육과 평가의 권위를 빌리는 도표.

Flourglass와 Shape and Score Clinic은 실기 훈련의 형식을 빌린다. 반복, 마감, 규정된 정밀함을 통해 일상의 기술은 제도적 시험으로 바뀐다. 약속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도 참여와 지속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빵학과

프로젝트 내 작품: Stretch

2024 | 생성 이미지를 사진 프린트로 제시



Stretch 프린트와 워크숍 재료가 함께 놓인 전시 전경.



제도적·가상적 용어 사이에 놓인 Stretch.

Stretch는 요가를 연상시키는 자세의 몸과 과장된 반죽을 결합한다. 불가능한 유연함은 규정된 수행과 열려 있는 상상력 사이의 충돌을 드러낸다. 이 이미지들은 생성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이며, 전시 사진은 그것이 전시장에 제시된 방식을 기록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키친: Oi! 가이드

위로 음식 여정 | 2023-2024 | Oi!, 홍콩



SAD 키친: Oi! 가이드, Oi!, 홍콩.

Oi!의 창고를 3D 프린트 오브제와 애니메이션, 인쇄물이 놓인 주방 같은 환경으로 바꾸었다. 관객은 음식과 감정에 관한 숨겨진 질문에 답하고, 노스 포인트 지역의 맞춤형 위로 음식 가이드를 받는다.

음식은 만남을 위한 체계가 된다. 개인의 감정이 동네의 장소와 이어지고, 원하는 관객은 푸드 컴패니언으로 등록해 낯선 사람과 함께 식사할 가능성을 연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키친: Oi! 가이드

주방에 숨겨진 선택

Oi! 가이드 | 참여형 설치



설치 세부와 관객의 참여 장치.



설치의 테이블 위에 놓인 3D 프린트 음식 모형.

익숙한 주방의 형태 속에 질문과 선택의 계기가 숨겨져 있다. 관객의 동선은 정해진 수업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 된다. 오브제와 이미지, 인쇄된 가이드는 전시장의 경험을 바깥의 음식과 장소로 연결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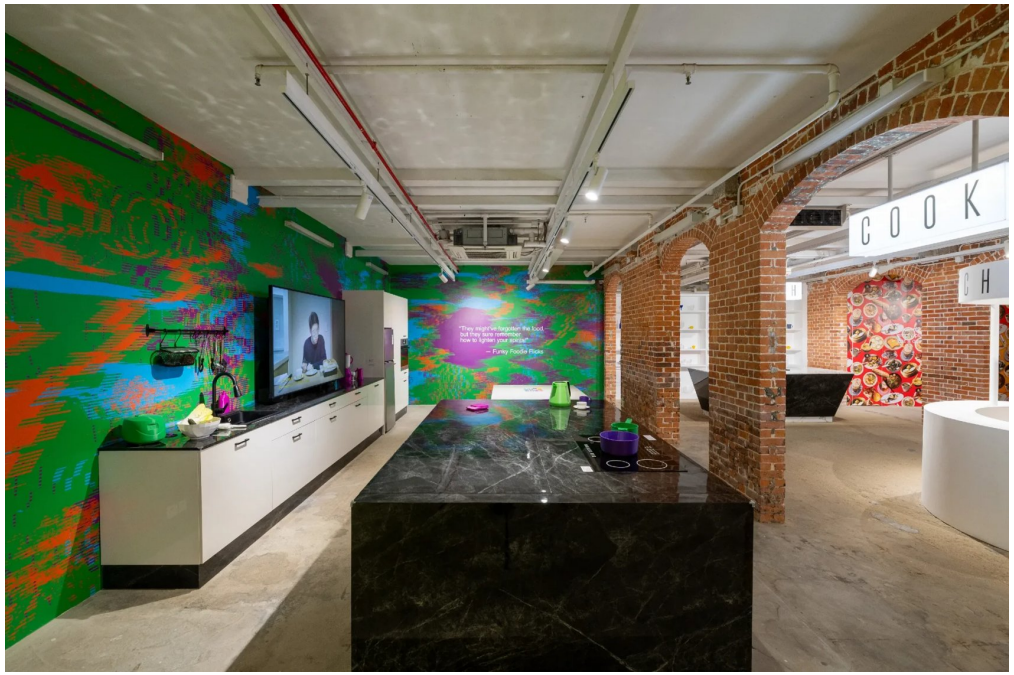
SAD 키친: Oi! 가이드

가이드에서 함께하는 식사로

Oi! 가이드 | 노스포인트, 홍콩



SAD 키친: Oi! 가이드의 관객 참여.



설치 세부, Oi!, 홍콩. 그래픽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서희선, 크리스 찬, Studio Hik.

위로 음식 가이드는 전시장 밖에서 행동해 보라는 제안이다. 음식에 얽힌 개인의 기억을 동네의 사회적 삶과 연결하며, 유희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돌봄과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2020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Art on Air 홈쇼핑 설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20.

SAD는 미술계를 직업훈련의 현장으로 다룬다. 가상의 학교가 제공하는 가이드와 상품, 연습을 통해 예술가의 성공 관습이 교육과정으로 바뀐다. 청주에서는 예술가의 이미지와 사교 기술에서 작품의 홍보와 판매, 대여로 질문을 넓혔다.

홈쇼핑 세트는 텔레비전 판매 방송의 설득 언어를 빌려, 예술의 가치가 포장되고 거래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조언, 상품, 약속

SAD 학교 | 2019-2020 / 영상 버전, 2023



sadshop 전시 전경,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20.



예술 홈쇼핑의 개발과 응용, 영상 스틸, 2023.

sadshop과 미디어 아티스트 스타터 키트는 소속과 인정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 이후 영상 작품 예술 홈쇼핑의 개발과 응용(2023)은 이 판매 형식을 확장한다. 학교와 상점, 방송을 통해 전문적 조언과 시장의 약속이 겹치는 지점을 드러낸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In-Attention

2017 | 갤러리 EXIT, 홍콩



In-Attention 전시 전경, 갤러리 EXIT, 2017.

카메라 테스트 차트와 프린터 점검 패턴, 기술적 사물들이 주의력을 살펴보는 도구가 된다. 기계를 조정하기 위한 패턴은 사람의 눈에도 집중을 요구한다. 정보가 넘치는 환경에서 평정과 집중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다.

영상과 사진 프린트, 광학 기구, 침대를 통해 몸의 경험을 기술적 조정의 언어와 나란히 놓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In-Attention

몸으로 마주하는 주의력

In-Attention | 2017



사진 투영, 벽면 투사, 2017.



Grain Focus, 라이트 패널, 필름 네거티브, 광학 기구, 2017.

사진 투영은 촬영된 방을 벽 위의 작은 이미지로 제시한다. Grain Focus는 필름 네거티브와 확대 기구를 결합한다. 두 작업은 바라보기를 크기와 지속시간, 몸의 위치를 지닌 행위로 만든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Piccolominist r. 316

2016 | 개인전 | 괴테 갤러리 및 블랙박스 스튜디오, 홍콩



Piccolominist r. 316 전시 전경, 주홍콩독일문화원, 2016.

책과 사진, 보고서, 투사 이미지를 통해 일상의 시간을 전시장에 가져온다. Afternoons와 루드비히 미술관을 위한 업무 보고서 등의 작업은 기다림과 바라보기, 기록의 순간들을 오간다.

하나의 완결된 사물보다 여러 주의의 방식이 전시장 안에서 만나도록 구성했다.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에 대한 초기 관심이 이후 예술 노동과 배움,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보여 준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Piccolominist r. 316

보고서와 변하는 빛

Piccolominist r. 316 | 2016



소책자 테이블 위에 설치된 루드비히 미술관을 위한 업무 보고서.



Light from Window, 권혜경이 그린 벽화.

기록된 예술가의 노동 시간은 인쇄되거나 그려진 빛과 대화를 나눈다. Light from Window는 권혜경이 그렸다. 보고서와 책, 이미지, 빛의 흔적은 서로 다른 형식을 유지하며 함께 놓인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Flat D

2015 | 시간 기반의 방 설치 | 홍콩아트센터



입구와 소지품 보관함 옆에 앉은 관리자, Flat D, 2015.

관리자는 관객에게 휴대전화와 카메라, 책 등 소지품을 밖에 두고 한 명씩 방에 들어갈 것을 권한다. 조건에 동의한 관객이 입장하면 문을 잠그고, 10분 뒤 다시 연다.

일상의 요구와 주의를 흩뜨리는 것들로부터 잠시 떨어진 시간을 만든다. 방 안의 고독한 경험은 초대되고, 규정되며, 시간을 재는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Flat D

방 안에서의 10분

Flat D | 300 × 220 × 250 cm | 10분



Flat D 내부, 홍콩아트센터, 2015.

변하는 빛과 에어컨, 평범한 방의 물질적 세부가 시간을 두고 감각된다. 이 작업은 홍콩아트센터에 설치한 Flat D이며, 쾰른 미디어예술대학에서 열린 개인전 Flat D, 6/F, Aldrich Garden과 구별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tolen Times for Sale

2008-2010 | 영상 설치 및 퍼포먼스



테이블과 카탈로그, 투사 영상으로 구성한 훔친 시간 판매 설치.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낯선 사람들의 이동에서 몇 초를 가져온다. 지연된 시간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판매되고, 관객은 한 구간을 구입해 디스크로 가져갈 수 있다.

길이와 등장인물, 반응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판매된 구간은 초와 가격을 적은 안내문으로 대체되며, 팔린 시간과 팔리지 않은 시간이 함께 재생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tolen Times for Sale

거래되는 시간

훔친 시간 판매 | 2008-2010



각 시간 구간과 가격을 기록한 카탈로그.



기록된 엘리베이터 이동의 영상 스틸.

카탈로그는 지연된 시간마다 기록과 가격을 붙인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의 작은 행동이 시간을 가져오는 사람, 이동이 지연된 사람들, 이후 영상을 구입하는 관객 사이의 관계로 바뀐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작가 약력과 연락처

주요 약력 | 2026년 11월

실라스 퐁은 홍콩 출신으로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교육자다. 설치, 참여형 작업, 퍼포먼스, 사진, 출판, 영상 등 여러 매체를 사용한다. 2017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퀼른 미디어예술대학 미디어·순수미술 과정(2013-2015), 홍콩중문대학교 미술학 석사(2010-2012), 홍콩침례대학교 시각예술학 학사(2005-2008) 과정을 이수했다.

info@silasfong.com

silasfong.com

Instagram: @silasfong

전체 이력과 프로젝트 기록, 비평문: silasfong.com

주요 발표

2026 사부작 레지던시, 양평

2025 키친 노트, 대추무파인아트, 강릉

2024 빵학과, 갤러리 조선, 서울

2024 나의 벗 나의 집, 아르코미술관, 서울

2023 SAD 키친: Oi! 가이드, Oi!, 홍콩

2022 내일의 미술가들, 청주시립미술관

2020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9 SAD Info Days, 서울시립 금천예술공장

2018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비디오태지

2016 Piccolominist. 316, 주홍콩독일문화원

2013 Move on Asia, ZKM, 카를스루에

2012 Hong Kong Eye, 사치 갤러리, 런던

2010 리버풀 비엔날레: Media Landscape

2008 Anonymity, 아티스트 커뮨, 홍콩

작품 © 실라스 퐁. 작가의 프로젝트 아카이브에서 선별한 기록이다. 세부 크레딧은 각 프로젝트 웹페이지에 수록했다.